

4. 냉혹함의 극치를 보여준 러시아혁명

강사: 박세길_새사연 이사 | newroad2015@naver.com

여러 모로 한국 사회의 틀과 기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 이후 과거의 전통과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형태의 혁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세계혁명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줄 것이다.

역사는 과정이 결과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과정을 규정짓는다. 결과를 기준으로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역사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란 허구이거나 자기기만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혁명을 기술하는 것은 적지 않은 곤혹스러움을 안겨다준다. 러시아혁명의 최종 결과는 소련 붕괴이기 때문이다.

러시아혁명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아무리 좋게 봐 주려고 해도 긍정적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이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다. 덕분에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도 있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불세비키 혁명사’는 소련공산당이 자신들의 정통성 확립을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었다. 다분히 권위주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절대적이었다. ‘당파성’이라는 표현으로 그러한 접근은 철저히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소련 붕괴와 함께 모든 권위는 무너졌고, 당파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 또한 사라지고 말았다.

이 글은 기성의 모든 권위에서 벗어나 러시아혁명을 관통했던 여러 주제 중에서 엘리트와 민중 사이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지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본질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불세비키 승리의 결정적 요인

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17년 2월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발했다. 혁명은

금속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촉발되었다. 혁명의 불꽃이 틈자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온 민중은 다투어서 짜르 궁전을 향해 몰려갔다. 궁전을 지키던 병사들이 시위대 편에 서면서 짜르 체제는 맥없이 허물어졌다. 더 이상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짜르가 물러나면서 자유주의적인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출범했다.

그로부터 혼란스런 정국이 끝없이 이어졌다. 수 세기에 걸쳐 절대적 권력을 행사해 왔던 짜르 체제가 무너지자 그 어떤 세력도 정국을 주도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소수 세력에 불과했던 볼셰비키로 불린 일단의 사회주의자 그룹이 무장봉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볼셰비키 승리의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냉정히 짚어 봐야할 지점이 존재한다. 과거 공식적인 소련공산당사는 볼셰비키 승리는 전적으로 최고 혁명 지도자 레닌의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노선의 결과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레닌은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러시아 사회민주당 안에서 당은 직업적 혁명가로 구성된 전위 조직이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러한 레닌의 주장은 당내에서 심각한 논쟁을 야기했고 결국 의견을 달리했던 멘셰비키와 완전 갈라서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직업적 혁명가로 구성되는 전위당 노선은 이후 소수 엘리트들이 작심하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명백히 엘리트주의 과잉으로서 갖가지 후과를 낳았다. 식민지 조선 등에서는 수많은 엘리트들이 당 조직만 장악하면 세상을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극심한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일사불란함을 자랑하는 레닌의 당 조직노선이 예측 불허의 혼란한 시기를 헤쳐 나가면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조직이 없었다면 볼셰비키 승리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철저한 당 조직 중심 관점이 민중을 '대상화'하는 데 있었다. 당 조직 중심 관점에 따르면 민중은 볼셰비키 안내에 따라 비로소 깨우침을 얻고 혁명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묘사된다. 과연 그러한가? 보기에 따라 진실은 정반대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것과 달리 발전된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후진적인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뒤늦게 산업화 길에 접어들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국가 권력과 외국자본 힘에 의존한 것이었다. 그만큼 부르주아 계급의 자생성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1차 세계대전은 짜르 중심의 국가 권력을 허물어뜨리는 한편 외국자본과의 연결 고리를 모조리 끊어 버렸다. 부르주아 계급이 기댈 언덕이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틀어쥐고는 있었지만 정국을 주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럴만한 힘도 없었고 권위 또한 전혀 인정받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정세 흐름에 떠밀려 이리저리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취약하기 그지없었던 기존 체제가 세계대전의 일격으로 붕괴하고 말자 그나마 있었던 문제 해결 능력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 무엇에도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민중은 오직 생존의 본능에 이끌리어 급진적인 행동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이 공장위원회 설립을 통해 공장을 장악해 들어갔다. 오랫동안 농노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농민들은 체제 붕괴를 틈타 토지를 점거해 들어갔다. 병사들은 전쟁 수행 명령을 거부하고 대열에서 이탈해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더불

어 2월혁명이 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노동자, 농민, 병사들은 자신들의 대의기구인 소비에트를 결성하여 별도의 권력 주체로 떠올랐다. 그 결과 케렌스키 임시정부와 소비에트가 권력을 양분한 '이중권력 상태'가 만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볼셰비키를 포함해 그 어떤 혁명 세력의 지도 안내 없이 민중의 독자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 볼셰비키는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속에서는 조직 기반이 아예 없었다.

민중이 급진적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은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볼셰비키의 최대 경쟁 세력이었던 멘셰비키는 그들의 공식에 갇혀 정국 흐름과 자신들을 갈라놓았다. 멘셰비키는 고전적인 2단계 혁명론에 입각해 해당 시기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로서 자본주의 발전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멘셰비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보았다. 멘셰비키는 그러한 입장에서 민중의 급진적 행동을 순리에 벗어난 경거망동으로 간주했다.

민중의 급진적 흐름과 자신을 일치시켰던 것은 거의 유일하게 볼셰비키뿐이었다. 민중이 볼셰비키에 적응했기보다 볼셰비키가 민중에 적응한 것이다. 레닌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볼셰비키는 '전쟁 중단', '즉각적인 토지 분배',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볼셰비키의 슬로건은 민중 사이에서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바로 볼셰비키 당 조직의 급속한 확대로 이어졌다. 2월혁명 당시 러시아 전역에 걸쳐 2천 명 수준에 불과했던 당원 수는 같은 해 10월에 이르러 30만 명으로 불어났다. 말 그대로 폭발적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10월에 이르러 볼셰비키는 소비에트 군사혁명위원회 이름으로 무장봉기를 단행, 전광 석화처럼 권력을 장악했다. 이로써 세계 최초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 궤도에 올라섰다. 취약하기 그지없었던 기존 체제가 세계대전의 일격으로 그 어떤 문제 해결 능력도 제시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세력이 갈피를 못 잡고 배회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일하게 볼셰비키만이 민중의 급진적 흐름에 자신을 일치시킨 결과였다.

적으로 둘러싸인 전시공산주의 체제

볼셰비키가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이전 시기 혁명가들이 낭만적으로 그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혁명은 극한 상황을 수없이 넘나드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일차적으로 볼셰비키를 엄습해 온 것은 반혁명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비롯된 내전이었다.

볼셰비키는 '적군'이라 불린 군대를 대대적으로 편성해 전장에 투입하는 한편 극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1918~1920년 사이 전시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했다. 볼셰비키는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었고 시장을 완전 폐기했다. 식량을 강제 징발했고, 주요 생필품과 공공 서비스는 국가를 통해 배급했다. 더불어 노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는 노동병영화를 추진했다. 전속 명령에 불응하는 노동자는 탈영으로 간주해 총살형에 처했다.

볼셰비키는 전시공산주의 체제를 통해 그들이 꿈꾸는 사회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한 기대는 볼셰비키로 하여금 필요 이상으로 전시공산주의 체제에 집착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독선이었다. 전시공산주의 체제는 민중 사이에서 적극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농민은 강제 징발에 맞서 자신이 필요한 것 이상을 생산하려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부족한 생필품은 조달하기 위해 공장 부품을 암시장으로 빼 돌렸다. 그 결과 농업과 공업 모두 생산이 급격히 하락했다.

전시공산주의 체제는 민중의 생활을 극한으로 내몰았다. 오직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혁명을 지지했던 민중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결국 볼셰비키가 핵심 지지 기반으로 여겼던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저항은 한 때 철도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4만 5천여 명 정도가 연대파업을 단행할 만큼 강력했다. 볼셰비키는 혁명 수호를 내걸고 군대를 동원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 노동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기관총에 의해 집단 처형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달 이상이나 투쟁이 지속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태는 노동자 진압에 동원된 군대가 발란을 일으키고, 일부 소비에트 선거에서 볼셰비키 반대파가 승리를 거두는 등 최악을 향해 치달았다. 볼셰비키는 또 다른 군대를 투입해 반란 부대를 진압하고 자신들이 패배한 소비에트를 강제 해산시키는 것으로 응수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민주적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볼셰비키는 포위당한 소수파로 내몰린 상황에서 그들이 내건 혁명 수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다. 한 번 잡은 권력을 빼앗기는 순간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파리 코뮌의 교훈이 볼셰비키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버티도록 만들었다. 결국 볼셰비키는 상황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에릭 홉스봄은 볼셰비키가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당원 수가 60만으로 늘어난 잘 단련된 공산당 조직이 있었다. 둘째 볼셰비키마저 무너지면 러시아 제국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 상당수 애국주의 세력이 적군에 적극 참여하거나 협력했다. 셋째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은 귀족들의 복귀를 두려워한 나머지 볼셰비키를 지지하였고, 적군 병사들 대부분은 바로 이들 농민들에 의해 충원될 수 있었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농민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소자산계급으로 분류하면서 혁명 세력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었다. 레닌은 이와 달리 ‘노농동맹론’을 주창하면서 농민을 혁명 세력 일부로 간주했으나 중요한 조직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혁명의 주역은 단연 노동자 계급이었다. 하지만 전시공산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노동자들은 반란을 일으킨 반면 농민은 볼셰비키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되었다. 혁명 교리와 크게 어긋나는 심각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는 이후 역사를 예고하는 한 장면일 수도 있었다. 중국혁명에서 극적으로 드러났지만 20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가장 강력한 원군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농민이었기 때문이다.

일련의 시기를 거치면서 볼셰비키 반대파들은 모두 힘을 잃고 사라졌다. 다분히 상황의 산물이기는 했지만 당시 볼셰비키의 머릿속에 다른 정치 세력과의 연대연합이 자리 잡을 여지는 전혀 없었다. 무자비한 진압이 이어지면서 민중의 저항 의지 또한 완벽하게 소멸되어 갔다. 대신 권력에의 순응이 민중의 뇌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결국 러시아 혁명

은 권력을 독점한 소수 엘리트의 기획과 민중의 순응이 상호 작용하는 체제를 잉태하고 말았다 이런 상태는 소련 말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사회주의 건설과 스탈린 체제

혹독한 경험을 한 불세비키는 내전을 승리로 마감하자마자 주저 없이 전시공산주의 체제를 철회했다. 곧바로 시장 부활과 함께 소생산자의 자유를 확대하는 신경제정책(NEP)을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는 집단화와는 거리가 먼 소농 체제가 지속되었다. 사회주의 건설 여정에서 후퇴를 감행한 것이다.

신경제정책에서 소련 경제는 안정을 되찾아 갔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생산 의욕이 고취되면서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했다. 신경제정책 성공은 고르바초프 등 후대 인물들 사이에서 소련이 신경제 정책을 고수했다면 한결 좋은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란 생각을 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사정은 녹녹치 않았다.

스탈린과 트로츠키를 중심으로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다. 트로츠키는 세계혁명이 진행되지 않은 조건에서 소련만의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하다고 보았다. 반면 스탈린은 소련에서의 일국 사회주의 혁명이 세계 혁명을 촉발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쟁은 스탈린의 승리로 끝났다. 무엇보다도 소련을 포위하고 있는 제국주의 진영이 언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자면 사회주의 공업화가 시급하다는 논리가 크게 주효했다. 주도권을 장악한 스탈린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전격 추진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초기 공업화를 뒷받침할 ‘자본의 원시적 축적’은 식민지 수탈 등 상업을 통해 확보되었다. 소련은 그런 방식으로 공업화에 필요한 초기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 소련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농업 생산물을 강제 수취하여 공업화에 투입하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국가가 통제하는 농업 집단화가 불가피했다. 국영 농장 중심의 농업 집단화가 강력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집단 농장에서 생산된 농업 생산물은 농민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양만 남기고 모두 강제 징발되었다. 강제 징발은 종종 흉작마저 무시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무리한 농업 정책의 결과 1932~33년 기간 동안 곡창 지대였던 우크라이나에 600~7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식량 배급을 조건으로 노동자들은 국가가 지시하는 현장에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 1년에 운동화 한 켤레가 지급될 정도로 소비 수준이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다. 빠른 속도로 광산이 개발되고 도로가 만들어졌으며 공장이 연속적으로 들어섰다. 소련 경제는 중공업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1929~1938년 기간에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에 세계 공산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서 52%로 줄어든 반면 소련의 몫은 5%에서 18%로 늘어났다.

소련 인민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겠다는 열망 하나만으로 사회주의 공업화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여기에 덧붙여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는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 소련 사회주의 경제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경제 사정이 호전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당 간부와 국가 관료들 사이에서 특권을 추구하는 경향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이른바 완장 찬 인간들의 거들먹거림이 혁명의 물줄기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스탈린은 이 점을 매우 심각한 시각으로 대했다. 스탈린은 특권 확대가 전시공산주의 시절에서와 같은 인민의 반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스탈린의 선택은 문제의 대상들을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다. 스탈린 체제를 아로새긴 ‘피의 숙청’이 끝없이 이어졌다.

공포 정치 와중에서 1934-39년 기간 동안 400-500만 명의 당원과 관리가 정치적 이유로 체포되었고 그들 중 40-50만 명이 재판 없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대부분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과연 그들은 혁명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 같은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

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반격

혁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묘연해질 정도로 숭한 후과를 남기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사회주의 공업화 자체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소련을 전격 침공한 것이다. 급속한 사회주의 공업화가 없었다면 감당할 구 없는 상황이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은 5천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목숨을 잃는 등 2차 세계대전 중 최대의 희생을 겪었다. 소련은 독일군의 기습 공격으로 레닌그라드가 900여 일 동안 봉쇄당하고 공업 지대가 몰려 있는 서부 지역 대부분이 독일군에 점령당하는 등 적지 않은 고전을 해야 했다. 그러나 소련은 전쟁터와 멀리 떨어진 동부 지역에 군수 공장을 건설하여 전차, 항공기, 탄약 등 군수 물자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면서 독일군에 대한 반격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불가강의 좁은 지역까지 몰렸던 소련군은 1942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벌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다.

히틀러 입장에서 볼 때 불가강 하구에 위치해 있는 스탈린그라드는 소련 침공이 핵심 목표였던 코카서스 유전 지대로의 안전한 진출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의 이름이 붙은 도시를 점령함에 따른 상당한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하여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전투에 총력을 기울였고 마찬가지로 이유로 소련 역시 스탈린그라드 방어를 위해 사력을 다하였다.

인간의 상상을 불허하는 참혹한 시가전 끝에 독일군이 소련군을 제압하면서 시내의 90%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독일군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전투의 운명을 갈랐다. 시 외곽으로 밀린 소련군이 거꾸로 시내로 진주한 독일군을 포위한 상태에서 보급로를 차단한 것이다. 독일군은 결사적으로 저항했으나 보급이 끊기고 혹한의 겨울이 닥치면서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독일군 포로 9만 명 대부분이 중도 사망하고 5천명만이 귀국했다. 이후 전투가 진행된 지역을 발굴하면서 독일 병사 14만 7200명, 소련군 4만 6700명의 사체가 발굴되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한 소련군은 독일군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승기를 잡은 소련은 후퇴하는 독일군을 추격하면서 동유럽 일대를 파시즘의 지배에서 해방시켰고 마침내 1945년 4월에는 연합군과 함께 베를린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견디다 못한 독일은 5월 8일 항복하고 말았다.

소련군이 독일 파시즘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동유럽은 자연스럽게 소련군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동유럽은 소련군 진주를 배경으로 소련 모델을 따라 사회주의 혁명의 길로 접어들었다. 소련에 국한되었던 사회주의 진영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동유럽 일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되었다. 그 결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독일군의 전면 공격이라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크게 도약한 것이다.

러시아혁명은 이전 시기 혁명가들이 꿈꾸었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극단적 괴리가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극한을 넘나드는 혁명 과정에서 낭만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낡은 질서부터의 해방이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 또한 결코 아니었다. 혁명가들의 말로도 대부분 죽음이었다. 혁명의 냉혹함은 얼음보다 차가웠고 승자의 미소 속에서 자비를 구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애초 혁명의 주체로 상정되었던 인민은 권력에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해 갔다. 혁명은 전적으로 소수 엘리트 집단의 판단에 맡겨졌다. 관료주의의 엄격함이 인민의 창발성을 대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혁명이 세계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놓았다는 사실이다. 소련은 비록 초기 국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후진 국가가 단기간 안에 공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선 보였다. 소련은 독일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파시즘 광기에서 인류를 해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소련은 사회주의 진영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일방 질주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